

8월 필리핀 김상태·김옥희 선교사 선교편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필리핀은 8월 한달간 내내 비가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도시가 침수되었고, 비가 그친 지금까지 물이 빠지지 않아 보트를 타고 다니는 지역이 있을 정도입니다.

수재 현장 및 구호사역

필리핀에서 오래 사역하며 많은 수해를 보았지만, 이번처럼 거센 비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피해가 심각해 교회가 있는 지역들을 둘러보았는데, 예상보다 상황이 매우 엄숙하고 침통했습니다. 이에 다음 날부터 선교센터에 보관 중이던 헌 옷과 수건, 그리고 직접 구입한 쌀과 과자, 음료 등을 챙겨 전도 대상지였던 미자립 선교지부터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구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골목 안쪽까지 짐이 많아 주민들에게 운반을 부탁드렸는데, 중간에 구호물품 여러 박스가 사라지는 배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년 넘게 선교하며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오죽 생계가 힘들고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즈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많은 주민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비를 맞으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준비한 물품들을 나누었습니다. 비는 일단 그쳤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지속적인 구호물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모데학교 체육대회 >



디모데학교 체육대회

디모데학교에서 뜻깊은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배드민턴, 배구, 태권도 시범, 장기자랑 등 교사들이 전날부터 정성껏 준비한 덕분에 학생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지친 기색 없이 내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디모데학교가 지역사회 안에 따뜻하게 뿌리내리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교회 개척사역 >



새로운 사역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옆의 '트랑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2020년 1월 타알 화산 폭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무상 이주 단지입니다.

현재 75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1,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가정이 헌신하여 집을 오픈해 주셔서 현재 가정 예배(하우스 교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섬에서 오신 분들이라 마음이 순수하여 복음을 매우 잘 받아들입니다. 현재 마을 앞 부지(약 1,800만~2,000만 원 상당)를 구입하여 큰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랑카 지역을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위의 사진 속 제 옆에 있는 고등학생 '자나'의 이야기입니다.

자나는 마음씨가 착하고 예쁜 아이지만 청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어 불려도 대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보청기(약 120만 원)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나의 부모님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나에게 보청기를 선물할 수 있다면, 이 지역 복음화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트랑카 지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가지 더 기도제목은 위에 사진에 제 옆에 있는 여자 고등학생이 이름이 자나입니다

자나는 너무 착하고 예쁜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것은 보청기만 있으면 희미하게라도 들을수가 있어서 부르면 대답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청기 구입할 돈이 없어서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청기가 12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벌써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청기를 사주면 정말 이 지역에 소문이 나서 복음 확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것 같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 밥퍼사역과 어린이 사역 >



늘 뜨거운 기도와 사랑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기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김상태·김옥희 선교사 올림

후원계좌:820-24-0261-152 국민은행 (김상태)

9월 필리핀 김상태·김옥희 선교사 기도제목

1. 8월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 지역과 주민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8월부터 사역을 시작한 트랑카 지역의 교회 부지 구입 (등기 비용 포함 약 2,000만 원)과 자나 학생의 보청기 마련(약 120만 원)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3. 9월 21일 선교센터에서 개교하는 '그레이스 선교신학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관이 되게 하소서. 많은 교회 리더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 충성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학장 직분을 맡은 제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4. 지난 7월 오른쪽 허벅지의 혹(12cm)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걷은 잘 아물었으나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남아있고, 오른쪽 종아리 앞쪽에 하지방사통으로 인한 저림과 열감이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이 회복되도록 치유하여 주소서.